

스키여왕 린지 본·피겨 신성 하뉴·스노보드 황제 손 화이트·아이스하키 전설 지온타...

겨울왕국 빛날 눈과 얼음의 마법사들



스노보드 황제 손 화이트의 아름답고 경이적인 점프를 평창에서 직접 만날 수 있다. 평창에는 겨울왕국 슈퍼스타들이 총 출동한다. 스키 여왕 린지 본(왼쪽 작은 사진 위부터)에게 평창은 마지막 올림픽 무대다. 일본의 국민스타 하뉴 유즈루를 응원하기 위해 수 천 명의 일본 팬이 평창으로 향한다. 화이트는 얼굴을 62바늘이나 꿰매는 부상을 당했지만 명예회복을 위해 평창으로 달려온다. AP뉴시스

아이스하키는 겨울올림픽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종목이다. 국내에서는 열기가 뜨겁지 않지만 2010밴쿠버 대회에서 아이스하키는 전체 입장수입의 45%, 2014소치 대회 때는 50%를 차지했다. 평창동계올림픽은 북미아이스하키리그(NHL)가 소속 선수의 참가를 불허했다. 분명한 약체다. 그러나 실망할 필요는 없다. 전 세계 팬들이 환호하는 겨울종목 슈퍼스타들이 평창에 모두 모이기 때문이다. 이름만으로 설렘을 주는 그들의 도전이 곧 시작된다.

美 대표팀 이끄는 NHL 슈퍼스타 지온타
피겨 하뉴, 66년만에 싱글 2연패 야망 스키여제 본, 마지막올림픽서 금빛 활강 독일 루지 황제 로호 3연속 금 신화 도전 화이트, 하프파이프서 부활 드라마 준비

●NHL 스타 지온타의 평창 금메달 도전
미국 대표팀은 NHL 선수들이 참가하지 않았지만 베테랑 브라이언 지온타(39)가 현역연장 대신 올림픽 금메달 도전을 선택해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지온타는 NHL을 대표하는 공격수로 16시즌 동안 1006경기에서 289골, 299어시스트를 기록했다. 노련한 공격수로 지난해 버펄로 세이버스와

계약 종료 후 타 구단에서 영입제안이 있었지만 올림픽 출전을 선언했다. 지온타는 대표팀 주장까지 맡아 미국의 젊은 유망주들을 이끌고 있다.

●하뉴의 대단한 인기몰이
지난해 2월 강릉 아이스아레나에는 일본 관중 4000여명이 몰렸다. 국제빙상연맹(ISU) 4륙권 선수권대회에 출전한 하뉴 유즈루(24·일본)를 응원하기 위해 한국을 찾은 원정 팬이었다. 하뉴는 일본에서 전 국민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슈퍼스타다. 하뉴가 출전하는 피겨스케이팅 남자 경기는 이미 모두 매진됐다. 장애인을 위한 휠체어 전용 좌석까지 모두 팔렸다. 하뉴는 소치에서 아시아선수로는 최초로 남자 싱글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평창에서는 미국 디버튼 이후 66년 만에 남자 싱글 올림픽 2회 연속 우승에 도전한다.

●스키여왕의 마지막 올림픽
'스키 여왕' 린지 본(34·미국)에게 평창은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다. 알파인 스키에서 월드컵통산 78회 우승기록을 갖고 있는 본은 밴쿠버 여자 활강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소치에서 올림픽 2연패를 노렸지만 부상으로 참가하지 못했다. 평창은 본에게 사실상 마지막 올림픽이다. 정상에 오른 뒤 은퇴하고 싶은 바람이 커 그동안 재활과 훈련에 전력을 다했다. 아름다운 미모로 미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높은 본은 평창동계올림픽 홍보대사로도 활약했다.

●로호의 올림픽 3회연속 금메달 도전
'루지 황제' 펠리시 로호(29·독일)는 평창에서 올림픽 3회 연속 금메달에 도전한다. 로호는 17세에 독일 국가대표가 된 루지 천재다. 밴쿠버에서

남자 싱글 정상을 차지해 루지 종목 역사상 최연소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됐다. 소치에서도 같은 종목에서 금메달을 땀다. 특히 로호는 2009년 시속 153.98km를 기록해 쉔매 종목 전체에서 가장 빠른 스피드를 기록하기도 했다.

●황제의 귀환 손 화이트
'스노보드 황제' 손 화이트도 평창에서 명예회복을 노린다. 2006년 토리노, 2010년 밴쿠버에서 스노보드 남자 하프파이프 2회 연속 금메달의 주인공인 화이트는 소치에서 4위에 머물러 빈손으로 돌아갔다. 화이트는 지난해 10월 고난이도 기술을 훈련을 하다 얼굴을 62바늘이나 꿰매는 큰 부상을 당했다. 그러나 평창을 위해 복귀를 서둘렀고 미국 대표팀 선발전 통과에 극적으로 성공했다. 이경호 기자 nush@donga.com



팀 코리아, 패밀리가 뜬다

컬링 김민정 감독, 남편·친동생과 태극마크 이기복 이기정·김영미 김경애는 형제·자매

'팀 코리아(Team Korea)'의 힘은 '패밀리 코리아(Family Korea)'에서 나온다? '848(금메달 8개·은메달 4개·동메달 8개)'이라는 목표 아래 2018평창동계올림픽에 출격하는 대한민국 선수단은 숨은 비장의 무기를 하나 지니고 있다. 바로 가족이다. 이번 대회에선 유독 혈연으로 얽힌 패밀리들이 힘을 합치고 있다. 물보다 진한 피를 앞세워 메달 상자에 나선 패밀리 코리아라고 할 수 있다. '빙판 위의 체스'라고 불리는 컬링은 패밀리 코리아가 집결한 대표적인 종목이다. 컬링에선 무게 20kg가 되는 스톤의 목표지점을 하우스라고 칭하는데, 이번 남녀대표팀에선 '집'을 뜻하는 하우스라는 단어처럼 실제 가족들이 정답에 의기투합하고 있다. 중심은 여자 4인조 김민정 감독이다. 김 감독은 이번 대회에서 남편 그리고 친동생과 함께 태극마크를 달았다. 우선 김 감독과 백년해로를 맺은 동반자는 남자 4인조와 혼성 2인조(믹스터블)를 함



컬링대표팀은 진한 피로 뭉친 가족의 힘이 대안이다. 여자 4인조 김민정(왼쪽에서 두번째) 감독과 남자 4인조 장반석(왼쪽 첫번째) 감독은 부부다. 김 감독의 친동생은 남자대표팀 김민찬(왼쪽 세번째)이다. 일란성 쌍둥이 이기복-이기정(왼쪽 여섯번째·맨 오른쪽) 형제도 함께 태극마크를 달았다. 김영미-김경애(왼쪽 네번째·다섯번째) 자매도 함께 평창에서 메달에 도전한다. 스포츠동아 DB

게 지휘하는 장반석 감독이다. 컬링 전 종목의 운명이 이들에게 달려있는 셈이다. 또한 김 감독의 친동생은 남자대표팀 김민찬이고, 남편의 부친은 한국컬링의 개척자로 명성이 높은 김경두 전 대한컬링경기연맹 부회장이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일란성 쌍둥이 이기복-이기정 형제는 각각 남자 대표팀과 믹스터블에서 의기투합하고, 김영미-김경애 자매는 여자대표팀에서 호흡을 맞춘다. 시선을 아이스하키로 돌리면 '용감한 형제' 두 쌍이 자리하고 있다. 남자대표팀 신상우-신상훈과 김기성-김상욱 형제다. 결출한 실력 덕분에 최종엔트리에 모두 포함된 두 형제는 어렸을 적부터 학교와 소속팀에서 호흡을 맞춘 사이다. 덕분에

이제는 눈빛만 봐도 서로의 생각을 읽는 수준이 됐다. 스피드스케이팅에선 정재용-정재형 형제가 금빛 질주에 나선다. 둘은 각각 18살과 16살로 어린지만, 기량만큼은 성인 못지않다는 평가다. 여자 아이스하키에는 국적은 다르지만 핏줄이 같은 자매도 있다. 한국 박윤정과 미국 한나 브랜트다. 1993년 생후 4개월 나이로 미국에 입양된 박윤정은 이듬해 태어난 브랜트와 함께 학창시절 아이스하키의 길을 걸었다. 그러던 중 2016년 박윤정이 귀화를 통해 모국 국적을 취득하면서 둘은 각기 다른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가 됐다. 고훈준 기자 shutout@donga.com

여자스키 5관왕 노리는 시프린, 본에 도전장

금메달만 70개, 설상종목 다관왕 누구?

남자스키 히르셔 올림픽 다관왕 조준 바이에슬른 뵤른렌도 금잔치 후보

2018평창동계올림픽에는 설상종목과 빙상종목을 합쳐 총 102개의 금메달이 걸려있다. 종목이 더 다양한 이유로 설상종목에 배정된 메달 비중이 더 크다. 무려 70개의 금메달이 걸려 있는데, 빙상은 이에 절반도 안 되는 32개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설상종목에서 메달을 단 한개도 획득하지 못했다. 국내에서는 비인기 종목이지만 해외언론과 팬들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평창동계올림픽 설상 종목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여자 스키의 독보적인 존재인 미카엘라 시프린(23·미국)은 이번 올림픽에서 무려 스키 5관왕을 노린다. 알파인 스키에 출전하는 시프린은 회전~대회전~슈퍼대회전~활강~복합에 걸쳐 5개 전 종목에 출전하는데, 모든 종목에서 가

장 강력한 우승후보다. 올림픽을 앞두고 열린 이번 시즌 월드컵에서 통산 10승째를 수확해 '스키 여제' 린지 본(34)을 위협하는 존재로 급성장 중이다. 남자스키에서는 '스키 황제' 마르셀 히르셔(29·오스트리아)의 금빛 활강이 기대된다. 히르셔는 최근까지 세계랭킹 1위를 지키고 있는 스키계의 절대 강자로 월드컵 무대에서만 통산 55승을 올렸다. 그러나 유독 올림픽과는 인연이 없었다. 2014 소치동계올림픽 회전 종목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게 전부다. 이번 평창올림픽 다관왕을 통해 자신의 커리어를 완성시키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역대 동계올림픽에서 가장 많은 메달을 획득한 이는 '바이에슬른의 전설' 올레 아이나르 뵤른달렌(44·노르웨이)이다. 뵤른달렌은 1998년 나가노동계올림픽부터 2014년 소치동계올림픽까지 무려 13개(금 8개·은 4개·동 1개)의 메달을 목에 걸었는데, 2002솔트레이크시티동계올림픽에서만 4관왕을 차지했다. 장은성 기자 award@donga.com 편집 | 인도영 기자 do02@donga.com